

소공동체모임 길잡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2010년 9월호



천주교마산교구 사목국
www.mssamok.cathms.or.kr

복음 나누기 7단계

시작성가

출석확인 및 인사 나누기

복음 나누기 7단계

1단계 주님을 초대한다.

“한두 분이 기도로 예수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2단계 복음(말씀)을 읽는다.

“... 복음 ...장을 펴 주십시오.”

“어느 분이 ...절부터 ...절까지 읽어 주십시오.”

“다른 분이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 주십시오.”

3단계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구절을 외친다.

“각자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짧은 구절을 큰소리로,
세 번 선포해 주십시오.”

“어느 분이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 주십시오.”

4단계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는다.

“3분 동안 침묵하며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도록 합시다.”

5단계 각자의 마음속에 들려주신 말씀을 나눈다.

“순서 없이 자유롭게 각자의 마음속에 들려주신 주님의 말씀을 나
눅시다.”

6단계 모임에서 해야 할 활동에 대하여 토의한다.

“지난 주에 공동체(각자)가 정했던 실천사항을 어떻게 실천했는지
나누어 봅시다.”

“우리가 이번 주(이번 달)에 해야 할 활동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무엇을 할 것입니까? 누가 할 것입니까? 언제 할 것입니까?)

7단계 자유롭게 기도한다.

“마음에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합시다.”

소공동체 기도 및 영광송

소공동체 기도

사랑의 근원이시며 친교의 모범이신 삼위일체의 하느님!
저희들은 초대 교회 신자들의 모범을 따라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 실천하는
소공동체 운동을 활발히 실천하여
친교와 봉사과 증거의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자 하오니
성령의 은사로 저희 마음을 새롭게 하시어
복음 선포의 사도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아멘.

소공동체 살림살이

소공동체 실천사항	
본당 공지사항	

매정한 종의 비유

시작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41번 “형제에게 베푸는 것” 1,2절을 부릅니다.

주님 초대하기

진행자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여주소서.
- 우리와 함께 있기를 약속하신 주님, 이 시간 당신을 느끼게 해주소서.

하느님 말씀

진행자 어느 분이 마태오 복음 18장 23절-35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그러므로 하늘 나라는 자기 종들과 썸을 하려는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임금이 썸을 하기 시작하자 만 탈렌트를 빚진 사람 하나가 끌려왔다. 그런데 그가 빚을 갚을 길이 없으므로, 주인은 그 종에게 자신과 아내와 자식과 그 밖에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러자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제발 참아 주십시오. 제가 다 갚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 종의 주인은 가없는 마음이 들어, 그를 놓아주고 부채도 탕감해 주었다. 그런데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백 데나리온을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났다. 그러자 그를 붙들어 멍살을 잡고 ‘빚진 것을 갚아라.’ 하고 말하였다. 그의 동료는 엎드려서, ‘제발 참아 주게. 내가 갚겠네.’ 하고 청하였다. 그러나 그는 들어주려고 하지 않았다. 그리고 가서 그 동료가 빚

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었다. 동료들이 그렇게 벌어진 일을 보고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죄다 일켰다.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불러들여 말하였다. ‘이 악한 종이, 네가 청하기에 나는 너에게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 너도 네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었어야 하지 않느냐?’ 그러고 나서 화가 난 주인은 그를 고문 형리에게 넘겨 빚진 것을 다 갚게 하였다. 너희가 저마다 자기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의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진행자 성경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1. 복음말씀 가운데 자신의 마음에 와 닿은 구절이나 그림을 보고 느낀 점에 대해 서로 이야기를 나누어 봅시다.

2. “나는 너에게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는 말씀에서 나에게, 또는 남에게 있어서 ‘빚’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함께 나누어 봅시다.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진행자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아이티 재건의 첫걸음

1804년 프랑스로부터 독립한 아이티는 아프리카로부터 온 흑인노예가 세운 최초의 독립국가이다. 프랑스 식민지 중 가장 풍요로웠던 아이티는 프랑스로부터 독립하면서 1억 5,000만 프랑, 오늘날의 210억 달러에 해당하는 배상금 청구로 인해 갚을 수 없는 부채를 안게 되었다. 프랑스가 보상을 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독립을 위한 ‘몸값’을 요구한 셈이다. 2004년 아이티 정부는 프랑스에 식민지 배상금이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전액 탕감을 요구했지만, 프랑스 정부는 이를 거부하였다. 뒤늦게 아이티 지진 이후 프랑스 정부는 아이티 부채 중 400만 유로를 탕감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아이티 정부는 배상금 지불을 위해 외국 은행에서 자금을 끌어왔다. 미국 은행에서 돈을 빌린 것은, 또 다른 비극의 시작이 되어 외채 상황을 구실로 1915년 아이티를 침략한 미국은 1934년까지 미 해군 역사상 가장 긴 점령통치를 했다. 냉전기간 중 미국은 ‘쿠바 압박’을 명분으로 폭력적인 독재정권 뒤발리에 부자를 적극 지원했지만 그들은 엄청난 돈을 해외로 빼돌렸고, 독재기간 동안 아이티의 부채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1957년과 1986년 사이에만 17.5배나 늘어났다. 이 돈은 아이티 국민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지배 체제를 배부르게 하기 위해 사용되었기 때문에 ‘부당한 채무’라고 볼 수 있으며, ‘부당한 채무’는 아이티를 부채

를 갚을 수 없는 처지로 만든 주요 원인이 되었다.

아이티의 대지진 참사 이후 공언된 원조금은 이미 부채 상환으로 상실된 금액이다. 아이티 국민은 지금도 매년 5,000만 달러씩 빚을 갚고 있지만 빚을 갚느라 의료나 교육을 비롯한 사회 인프라를 세우지 못한 연약한 국력이 아이티를 빈곤의 궁지로 몰아넣고 있다. 진정한 아이티의 재건을 위한 첫걸음은 부채 탕감을 통해 아이티의 경제주권이 회복되고, 그들 스스로 일어설 수 있다는 삶의 희망을 불어넣는 것이어야 한다.

진행자

1. 나는 다른 이들로부터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진 빚을 탕감받은 적이 있었습니까? 있었다면 그 기분을 간단히 나눠 봅시다.
2. 나는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빚진 이들의 빚을 탕감해 주기 위해 무엇을 해야할 것인지 간단히 얘기해 봅시다.

기타토의

소공동체 모임에서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정합시다.
(실천사항을 정한 후 본당 공지사항과 기타토의를 한다.)

마침기도

진행자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합시다.

마침성가

진행자 가톨릭성가 441번 “주의 나라 임하면” 1,2절을 부릅시다.

‘없습니다’

가정에서 온 가족이 동그랗게 모여 앉아서 진행합니다.

가정기도를 시작하며

진행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중의 한 사람이 주님을 초대하는 기도를 해 주세요.

말씀과 함께

진행자 한 사람이 다음의 성경말씀을 읽어 주세요.

† 마태오 복음서 6장 31절

31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차려입을까?’ 하며 걱정하지 마라

진행자 이번엔 다 함께 소리 내어 다시 한 번 읽어요.

(다 읽은 후) 잠시 동안 말씀을 묵상합니다.

말씀 나누기

- ① 성경 말씀을 읽고 느낀 점을 이야기해 봅시다.
- ② 다음 문장의 빈칸을 완성해 봅시다. 그리고 서로의 답을 비교해 봅시다.

‘요즘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이다.’

함께 생각하기

진행자 오늘의 주제는 ‘없습니다.’



생각 나누기

- ① 함께 손을 잡고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리와 손끝에 전해지는 감촉에 마음을 기울여 봅시다.
- ② 어떤 생각과 느낌이 들었는지 돌아가면서 발표해 봅시다.

❖ 함께 실천해요!

진행자 다음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우리는 왜 그렇게 아등바등 여유 없이 살아갈까요?
- 무엇을 얻겠다고 앞만 보며 달려갈까요?
- 우리에게 아무 생각 없이 창밖을 바라보거나 하늘을 올려다보며 멍하니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 가끔은 서점에 첩퍼덕 앉아서 시집도 몇 권 읽을 여유가 필요합니다.
- 내리는 비를 바라보며 슬픈 노래 한 줄 흥얼거릴 수 있어야 합니다.
- 옛날 다니던 초등학교 운동장에 한 번쯤 가보아야 합니다.
- 버스 창가에 내려앉은 햇살과 바람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 우리는 세상이라는 감옥에 들어가려고 애씁니다.
- 답답하고 고단한 일상은 어찌면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것인지도 모릅니다.
- 소중한 것들을 낱감한 지하창고에 가두고 사는지도 모릅니다.
- 우리에게 휴식이 필요합니다.
- 지금 우리가 하는 가정기도는 의무가 아닌 휴식이 되어야 합니다.
-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없습니다.'

❖ 가족회의

진행자 가족회의 시간입니다. 가족이 함께 알아야 할 사항이나 논의가 필요한 일들, 가족 친지들의 생일, 축일 소식이나 평소에 하고 싶었던 이야기, 가족에 바라는 점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자녀에 대한 훈계의 시간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 평화의 인사

진행자 지금부터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방법은 온가족이 돌아가며 포옹하고, 부모님은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의 기도를 해주세요.

❖ 가정기도를 마치며

진행자 다함께 손을 잡고 주모경을 바치겠습니다.

*가정기도는 서울대학교에서 발행하는 「소공동체모임길잡이」에서 발췌하였습니다.

소공동체 역할배분 3

이번 호에서는 역할배분 마지막 단계로 봉사활동담당, 전례 및 친교담당, 회계담당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봉사활동담당의 역할

봉사활동담당은 6단계에서 진행자의 안내에 따라, 구역 내 불우이웃 현황을 파악해 나누거나, 환경미화 및 복지시설 방문 계획을 세웁니다. 예를 들어, 봉사활동담당은 “우리 구역 내 독거노인 가정이 2곳, 소년소녀 가장 가정이 3곳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에는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해 간단한 집수리와 쌀을 전달해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식의 나눔을 합니다.

- ① 구역·반 내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불우이웃 현황을 조사하고, 경조사를 챙깁니다.
- ② 동네 환경미화, 환자 및 복지시설 방문 활동을 계획합니다.
- ③ 이러한 사항은 소공동체 모임 시, 6단계에서 구성원 서로가 함께 나누고 계획을 수립합니다.

전례 및 친교담당의 역할

전례담당은 소공동체 모임을 위해 성가를 미리 뽑아두고, 신심행사를 기획합니다. 예를 들어 전례담당은 “이번 주 저희 소공동체가 다함께 모여 십자가의 길을 바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시간은 화요일 저녁미사 후가 좋을 듯합니다.”라는 식의 나눔을 합니다.

- ① 소공동체 모임 시작성가를 선곡합니다.
- ② 다 함께 바쳐야 할 기도 지향과 기도문을 선정합니다.
- ③ 전례시기에 따른 신심활동을 계획하고, 본당 전례 공지 및 참여를 유

도합니다.

- ④ 성지순례 프로그램을 기획합니다.
- ⑤ 소공동체 모임 이외의 각종 친교활동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모임 후 차를 마시며 간단한 친목게임 혹은 주말 문화생활, 소공동체 가족소풍 등)
- ⑥ 이웃 소공동체 간의 교류를 추진하거나, 단합을 위한 친목활동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는 이러한 일련의 계획을 세워, 소공동체 모임 시 구성원들의 의견을 청취, 일정과 프로그램을 기획합니다.

회계담당자의 역할

회계담당자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고 6단계에서 진행자의 안내에 따라 회계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계담당자는 “이번 주에 마리아 자매님의 둘째 아들이 본당에서 혼배를 합니다. 모두 기쁜 마음으로 축하하며, 선물 구입을 위해 약간의 회비를 각출했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식의 나눔을 할 수 있습니다.

- ① 소공동체 모임의 회비가 있다면 회비를 관리하고, 모임의 필요 시 예산을 세워 적절하게 집행할 수 있습니다.
- ② 6단계 활동 나눔 시,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수립해 금액을 확보할 방법을 구성원들과 논의할 수 있습니다.
- ③ 이밖에 구성원들의 축일, 경조사 등에 필요한 선물비를 책정하고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수원교구 복음화국에서 발행하는 「소공동체 봉사자 교육 2단계 지도자용 지침서」에서 발췌하였습니다.



여섯 살 본당의 작지만 아름다운 걸음

정희숙 글라라 (삼계본당 지역부장)

마산 속의 작은 신도시에 위치한 내서 삼계본당은 얼마 전 본당설립 6주년을 맞이한 신설 본당입니다. 신도시에 자리하고 있는 데다 아직은 성장기인 본당이라 내외로 다듬고 가꾸어야 할 부분이 많지만 공동체의 유대감은 타 본당 못지않게 끈끈한 정으로 뭉쳐 있습니다. 본당의 날과 같은 크고 작은 행사 때면 자기 일로 받아들이고 솔선수범하여 나선답니다. 본당 설립 10주년을 준비로 성전보수기금 마련을 위해 의류, 고철, 폐지와 같은 재활용품 수집에 구역장 반장님들을 중심으로 전 신자가 동참하고 있지요. 주일날은 생필품(멸치, 돈까스, 비누 등) 판매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수고를 해주십니다.

매월 첫째 목요일에는 구·반장 월례회가 열립니다. 6구역 25개 반 구역장 반장님의 출석률은 97%로 높습니다. 신임반장이 선출되면 사진을 제출하게 하여 관심을 가지고 격려하며 빨리 적응하실 수 있게 돕지요. 모임에는 말씀과 나눔의 기쁨이 있어야 하기에 두분의 차장님은 다과와 간단한 음식을 준비해 주십니다. 지역부에서는 그밖에도 본당 전례봉헌, 주일 차 봉사, 봉성체 협조, 연도 등 크고 작은 일에 앞장서고 계시지요.

여러 반모임 가운데 특히 5구역은 연세가 많은 어르신으로 구성되어 있어 여러 가지 어려움을 안고 있는 구역입니다. 여느 반장님이 그러하시듯 5구역 반장님도 여러 모로 수고가 많으시답니다. 반모임이 있는 날이면 반장님께서 시장바구니에 큰 성경책 4권과 커

피, 수저, 그릇을 가득 싣고 모임 장소로 찾아가시지요. 반모임을 하는 순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을 인식시켜드리고 성경을 찾을 줄 모르는 어르신들을 위해 성경구절을 직접 찾게 도와주시며 모임을 이끌어 나가십니다. 다른 반에서는 직접 몸으로 땀을 흘릴 수 있는 활동을 하지만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건강이 좋지 않으시기에 본당을 위해 발로 땀을 흘릴 수는 없지만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하자는 데에 뜻을 모으셨답니다. 이에 본당 성전보수기금 마련에 마음을 모아 반원 모두 조금씩 내어 적금을 넣으셨지요. 이제 제법 많은 금액이 모여 봉헌날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반장님께서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에는 반원들이 이런 때일수록 더 잘해야 한다며 모임에도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셨고, 본당의 날 행사 때에도 서로 잘 협력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셔서 여기저기서 칭찬이 대단했답니다.

반모임 활성화를 위해 작년부터는 매월 2회 구역 반 미사를 실시하면서 그동안 공석이던 반장님을 선출하고, 반원들 간의 친목을 도모하였답니다. 매월 요일과 시간이 변경되는 반도 있는데 개최자의 사정을 최대한 감안하여 배려하느라 그렇다고 하네요. 이렇게 서로를 배려하고 격려하는 가운데 이제 25개 반 미사도 막바지에 이르렀답니다. 그 과정에서 수고해 주신 구역장 반장님과 바쁜 와중에 참석해 주신 본당 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복잡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형제자매님들께서 반모임을 통해 예수님을 자신의 삶 가까이에서 느끼며 작지만 아름답게, 느리지만 꾸준한 걸음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길 두 손 모아 기도드립니다.



왜 성경을 ‘하느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나요?

사목국

전에 성경은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신앙공동체의 삶 속에서 나왔다고 말하였습니다. 즉 신앙공동체가 하느님의 구원 사건을 체험하고 그것을 구전이나 문서로 후대에 전승하다가 때가 되어 성경 저자들에 의해 편집되거나 기록된 책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성경이 후대의 성경저자들에 의해 기록되었다면 이런 의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하느님의 구원사건을 기록한 것이지만 기록자가 인간이기에 틀릴 수도 있고, 또한 저자 나름대로의 생각이 담긴 작품일 수도 있지 않은가?

여기에서 성경이 인간의 작품이 아니라 틀림없는 하느님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성경 기록자가 직접 하느님의 능력을 받았다는 보장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을 영감(靈感- 성령의 감도)이라 합니다. 즉 성령의 이끄심과 비추심 하에 기록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전부 하느님의 영감으로 쓰인 것으로, 가르치고 꾸짖고 바로잡고 의롭게 살도록 교육하는 데에 유익합니다.”(2티모 3,16) “성경의 어떠한 예언도 임의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예언은 결코 인간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성령에 이끌려 하느님에게서 받아 전한 것입니다.”(2베드 1,21)

이처럼 성경은 인간의 손을 거쳐 기록되었지만 성령의 인도 하에 이루어진 것이기에 구약시대 말기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을 ‘거룩한 책’

이라 불렀고(1마카 12,9) 신약에서도 ‘하느님의 말씀’(요한 10,35), ‘신탁’(사도 7,38), ‘거룩한 책들’(로마 1,2), ‘거룩한 글들’(2티모 3,15)이라 하였습니다. 이런 호칭들은 이 글들이 하느님에게서 유래한다는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감도는 구원의 역사 전체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께서 구원 역사의 주역들에게는 행동하는 영감을 주셨고, 예언자와 사도들에게는 말하는 영감을 주셨고, 성경 필자들에게는 기록하는 영감을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의 원 저자는 하느님이시며 성경은 살아있는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하느님의 말씀임을 확인함에 있어 이러한 성경의 증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체험입니다. 역사 안에 활동하시는 하느님의 영을 믿는 사람에게는 성경이 성령의 작용 하에 기록되어졌다고 믿어지지만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 왜 성경이 하느님의 말씀인지는 그것을 읽고 묵상함으로써 살아 있는 말씀을 체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쌍날칼보다도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가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히브 4,12)놓는 힘이 있다고 했습니다. 꾸준히 읽고 묵상함으로써 그 안에 작용하시는 하느님의 영감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성 이윤일(李尹一 · 요한)

- 대구대교구 제2수호자 -

김길수 · 사도요한(전 대구가톨릭대학 교수)

성 이윤일(1816~1867) 요한은 (속명은 의서, 일명 제헌, 윤경이란 기록도 있다.) 1816년 충청도 홍주의 중인 집안에서 태어났다. 그의 집안은 5·6대를 이어온 열심한 신자가정으로써 그의 집안에서는 여러분이 전교회장을 지냈다. 이윤일 성인도 가풍을 이어받아 독실한 신앙인으로서 회장직을 수행하였다. 그의 성품은 10여 년을 한집에 살면서도 단 한 번의 화도 낸 일이 없었다는 증인의 말대로 온순하고 신심이 깊었으며 솔직 담백한 사람으로 평이 나있었다. 그의 집안은 박해를 피해 고향을 떠나 상주 감골로 이주했으며, 부친이 사망한 후에는 다시 문경의 여우목으로 와서 살게 되었다. 이곳에서 외교인 30호를 입교시켜 여우목 신자촌의 회장으로 활동하였다.

1866년 11월 18일 문경관아에서 여우목 신자들을 수색하도록 포졸을 보냈을 때 성인은 이를 알면서도 태연히 때가 온 것으로 생각하며 받아들였다. 포졸들이 “이

마을을 대표하는 집주인이 누구이며, 천주교를 믿는 자가 누구냐?”고 묻자 그는 선뜻 나서서 “바로 나요.”하고 짐작게 말하였다. 포졸들은 교우촌을 뒤져 성인의 가족 8명과 신자 30여 명을 체포하여 험준한 산길을 밤새 걸어서 문경으로 끌고 갔다. 문경관아에서 3일간 혹형과 고문을 당한 후 상주로 압송되고 상주에서 9차례의 혹형과 고문을 당한 그는 사형집행을 위해 대구 감영으로 이송되었다. 그리고 1867년 1월 4일 사형 명이 내려지고 그해 1월 21일 관덕정에서 사형집행이 되기까지 처참한 시련을 겪었다.

그의 목에는 큰 칼이 들썩이나 채워지고 발에는 작교를 끼워 모진 때로 상처투성이인 몸을 가누기도 어렵게 하여 매섭게 추운 겨울을 들판의 무, 배추 구덩이 속에서 지내게 했다. 이런 가혹한 고통 속에서도 성인은 아침, 저녁기도와 묵상을 빠지지 않고 행했으며, 더욱 신자들을 격려하며 “세상의 고통이 클수록 천상영복은 우리의 것이니 어찌 잠시의 고통과 영원한 복락을 바꿀 수 있겠느냐.” 하고 스스로 모범을 보였다. 상주에서 사형이 확정되고 형집행을 위해 대구로 압송될 때 성인은 오히려 기뻐하며 자녀들에게 “나는 이제 순교하러 떠난다. 너희들도 성실히 주님의 계명을 지키도록 하여라. 그리고 나를 꼭 따라오너라.”고 하였다.

1867년 1월 21일 대구 남문 밖 관덕정에서 사형집행

관이 선고문을 낭독하자 이윤일 요한 성인은 품속에서 돈주머니를 꺼내 칼을 들고 선 휘광이에게 주며 “나를 위하여 수고하는 자네에게 줄 터이니 요긴하게 쓰게나.” 하였다. 그리고 십자성호를 긋고 조용히 꿇어앉아 장엄하게 순교하였다.

대구 관덕정의 순교자 이윤일 요한은 1968년 10월 6일 동료 23위 순교자와 함께 교황 바오로 6세에 의하여 복자로 시복되었다. 그리고 1984년 5월 6일 방한한 교황 요한바오로 2세는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 동료 순교자 102위와 함께 성인으로 시성, 선포하여 온 인류의 영원한 귀감이 되게 하였다.

1867년 1월 21일 대구 관덕정에서 52세의 나이로 참수순교한 성인의 유해가 날뒀(현 대구 비산동)에서 묵리(경기도 용인)로 옮겨지고, 묵리에서 미리내 무명 순교자 묘소(수원교구 성직자 묘역)에 안치되었음을 대구대교구에서 확인하고, 수원교구와 합의하여 1986년 12월 21일 성인의 유해를 대구로 이장 봉안하였다. 이 사실을 미리내의 현장에 돌을 세워 성인의 유해를 모시고 대구대교구의 신자들이 대주교님(당시 교구장 이문희 대주교)과 함께 “장엄하게 행렬을 이루어 갔다.”라고 새겨두었다.

1987년 성인께서 순교하신 날인 1월 21일 대구대교구 교구장 이문희 대주교는 이윤일 요한 성인을 대구대

교구의 제2의 수호자로 선포하셨다.

“하느님의 섭리는 오늘 우리의 신앙을 더욱 굳게 하고 장한 순교 정신을 이어받게 하시고자 이윤일 요한 성인을 우리교구 제2의 수호자로 모시려는 열망을 우리 마음에 불러 일으켜주셨습니다. 이에 본 주교는 이윤일 성인 치명 120주년을 기념하여, 미사를 봉헌하고 성인의 유해를 성모당에 봉안하는 이 뜻 깊은 자리에서 성인을 본교구 제2수호자로 모실 것을 선포합니다.”

- 이윤일 요한 성인 교구 제2수호자 선포 교서 중에서 -

이렇게 당시 성모당(대구 남산동)에 안치되었던 성인의 유해는 대구교구에서 특별히 성인을 기념하고자 1991년 1월 21일 건립된 대구 관덕정 순교기념관 경당 안의 제대에 모셔져 있다. 그리고 해마다 교구에서는 성인의 순교정신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이윤일 성인 기념제를 열고 있다.

세월은 흐르는 물같이 백골은 진토되고 가해자도 피해자도 역사 속에 사라져갔다. 그러나 세월이 흐를수록 순교정신은 더욱 빛나게 산이들의 가슴 속에 맺혀온다. 오늘 우리가 그 정신을 이어가야 마땅히 그들의 후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알 림

»» 사목국

■ 구역분과위원 연수 및 신입소공동체장 연수

구역분과위원 연수와 신입소공동체장 연수가 아래와 같이 개최됩니다. 각 본당 구역분과위원들 및 신입소공동체장들께서는 본당을 통하여 신청하신 후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역분과위원 연수

일 시 : 2010년 9월 8일(수) 10시~15시

장 소 : 마산가톨릭교육관

참가비 : 1인 15,000원

준비물 : 필기도구, 개인컵

신 청 : 교구 공문 참조하여 본당을 통해 신청

문 의 : 055) 249-7021~3

■ 신입소공동체장 연수

일 시 : 2010년 9월 14일(화) 10시~15시

장 소 : 마산 상남동 성당

참가비 : 1인 15,000원

준비물 : 필기도구, 개인컵

신 청 : 교구 공문 참조하여 본당을 통해 신청

문 의 : 055) 249-7021~3

»» 가정사목국

■ 가나혼인강좌

일 시 : 2010년 9월 19일(주일) 13:00

장 소 : 마산교구청 강당

대 상 : 혼인성사를 앞둔 미혼 남녀

문 의 : 055) 249-7028~9, Fax. 249-7100

신청서는 각 본당 사무실에서 작성하여 Fax로 보내시면 됩니다.